

교육부 종합평가 **최우수** 사이버대학교 (2007)

서울사이버대학교

대학원 : 5월 26(화)부터 원서접수
 학 부 : 6월 1일(월)부터 원서접수
 문 의 : 02-944-5000(학부) / 5500(대학원)

최고 교수진
 최첨단 23,000㎡ 캠퍼스



방송국 수준 스튜디오



멀티미디어 강의실



차이코프스키홀

학교법인
 신일학원



서울사이버대학교
www.iscu.ac.kr

4호선 2007 교육부 종합평가 최우수 서울사이버대학교 방문을 환영합니다. 지하철 4호선 **미아(서울사이버대학)역 2번** 출구입니다.

정가 : 5,000원

2015 DT BRAND POWER

DT브랜드파워대상



2015 SPRING
 VOL.28

e 세상을 움직이는
 서울사이버대학교

SCU e 이야기

스웨덴 Crown Princess
 Victoria Ingrid Alice Desiree

Seoul Cyber University • 2015 SPRING VOL.28

학교법인
 신일학원



서울사이버대학교
www.iscu.ac.kr



e-교육의 종소리 울리다

상아탑의 지식은 세상과 만나 세상 속에서
쓰여질 때 그 가치가 더욱 빛나는 법입니다.
다시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여러분에게
서울사이버대의 교육은 그래서 더욱 소중합니다.
e-세상을 넘어 울려 퍼지는 e-교육의 종소리,
이제 여러분과 함께 듣고 싶습니다.

contents

특별한 e-이야기

- 04 제8대 허묘연 총장 취임
- 06 2014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 08 2015학년도 전기 입학식
- 10 2015학년도 신·편입생 오리엔테이션
- 12 음악학과 신규 개설

더불어 e-이야기

- 14 인디애나대학교 & 서울사이버대학교
- 18 지누선의 '선' 나눔 특강
- 20 제7차 방콕 ACU 운영위원회 회의
- 22 AUN-ACU 아세안학 콘텐츠 개발 워크숍
- 24 스웨덴 왕세녀 부부 초청 만찬

당신의 e-이야기

- 28 군경상담학과 심용식 특임교수
- 30 해외명사 인터뷰
- 32 이색 신입생 인터뷰
- 34 수상자 인터뷰

우리의 e-이야기

- 36 KAIST 김대식 교수 특강
- 37 이성태 교수 지식나눔 특강
- 38 남상규 교무지원실장 수상 소식
- 39 WAVE 사회봉사단 우수단원 표창
- 40 골프동아리 장학금 기부 소식
- 41 을지부대 간부 본교 방문
- 42 멘토링 평가회 & 멘토링 결연식
- 43 단신 뉴스
- 48 교수 동정

서울사이버대학교 2015년 SPRING VOL.28

발행일 2015년 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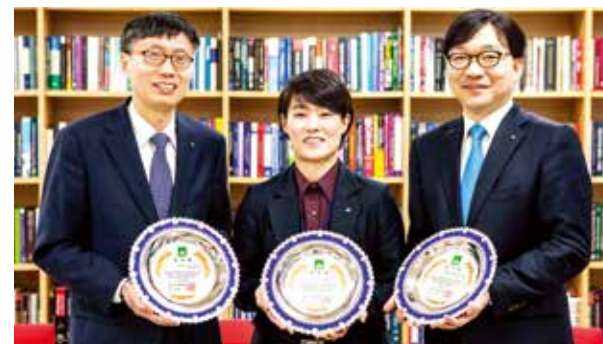
발행처 서울사이버대학교

편집주간 차명희 교수

편집위원 김영민, 박병석, 정상원, 한수미, 홍선관 교수

기획편집 서울사이버대학교 출판부 (02)944-5255

感 커뮤니케이션 (02)737-1112



제8대 허묘연 총장 취임

지금 우리의 노력들은
명문 브랜드 'SCU'를 만드는
초석이 됩니다



조선일보

2015년 2월 28일

허묘연 서울사이버대 총장

서울사이버대학교 총장으로 허묘연(49) 상임심리학과 교수가 선임됐다. 임기는 3년. 이화여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2005년 서울사이버대 교수가 돼 학생처장, 대학원장, 부총장을 거쳤다.



좌측 네 번째부터 정영애 부총장, 박영국 이사, 강인 협동총장, 허묘연 신입총장, 이상균 이사장, 신일고 최경호 교장, 김영동 이사, 이은주 부총장

지금 우리는 새로운 대학 교육환경에 있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개방, 공유, 협력, 소통의 '교육3.0'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며, 해외는 물론 국내 명문대학들도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공개강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 사이버대학으로서 우리가 함께 쌓아온 성과들을 기반으로 이제 새로운 서울사이버대학의 전환점을 맞이하려 합니다.

첫째, 사회와 통섭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인재의 장을 만들기 위한 차원 높은 콘텐츠와 수준 높은 인재 유치프로그램, 학과별 경쟁력을 강화하고, 학생과의 접점을 다양화하고 세심한 학생지도를 통해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둘째, 기존의 대학교육제도를 보완, 대체할 수 있는 미래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에 집중하고 사이버대학의 수업내용과 방법의 혁신을 시도하겠습니다.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적 요구와 리스트 요인에 대한 사전 탐지와 대응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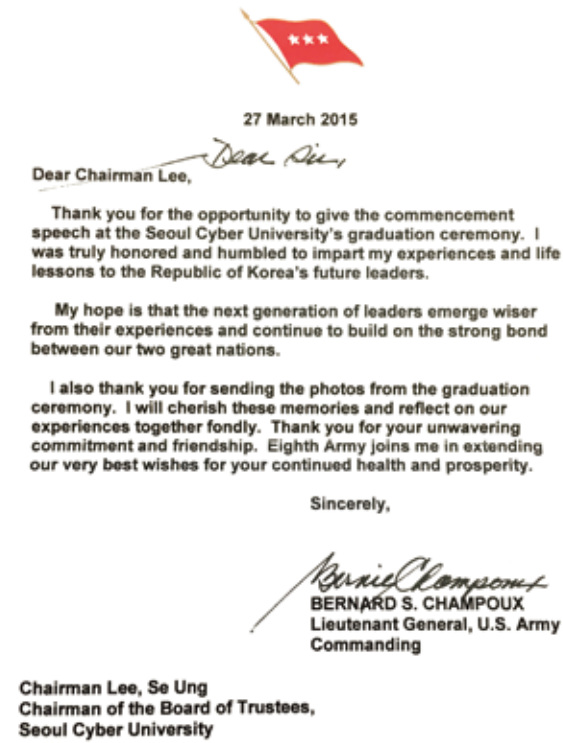
셋째, 세계적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제도와 시스템의 보완과 업그레이드 및 국제화, 해외협력과 교류 강화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체 교직원의 경험과 능력, 사명감이 앞으로의 우리 대학의 미래를 개척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는 점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노력들은 우리대학의 명문대학 브랜드 구축을 위한 강력한 초석이 될 것이며 최고의 자산이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준비하고 도전하는 자세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장 취임사 中 발췌

문학박사 총장 허 묘 연



버나드 S. 샴포우 미8군 사령관 축하메세지



축사를 하는 버나드 S. 샴포우 미8군 사령관



신일 실내 스타디움에서 개최된 학위수여식

2014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현장

- 석사 21명, 학사 2,062명 학위 수여, 개교 이래 학부 총 22,143명, 대학원 178명 배출
- 버나드 S. 샴포우 미8군 사령관, 강수진 국립발레단장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사 참석

우리 대학은 지난 2월 28일(토) 오후 2시 미아동 신일캠퍼스 실내 스타디움에서 2014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을 가졌다. 신일학원 이세웅 명예이사장, 이상균 이사장을 비롯, 국무총리를 역임한 정원식 이사, 서울대 총장을 지낸 조완규 이사, 김영동 이사, 김진수 이사, 박영국 이사와 버나드 S. 샴포우 미8군 사령관, 국립발레단 강수진 단장, 동신교회 이세영 목사 등 많은 내빈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낸 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석사 21명, 학사 2,062명 등 총 2,083명이 자랑스러운 학위를 받게 되었다.

버나드 S. 샴포우 미8군 사령관은 “오늘만큼은 그 누구보다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고 큰 걸음을 내딛는 자신에게 자부심을 느꼈으면 한다”면서 “새로운 여정을 떠나는 졸업생들에게 행복과 기쁨이 넘치기를 바란다”고 직접 축사를 전했다. 특히 그는 “**저의 아버지 또한 한국에서 군인으로 복무했다**”면서 2대에 걸쳐 이어진 한국 사랑을 내비쳐 큰 박수를 받았다. 학위수여식이 모두 끝난 뒤 각 전공 및 학과별 포토타임에서 졸업생들은 아쉬움을 뒤로 하고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의 마지막 추억을 쌓았다.



총장상을 수여하는 강인 협동총장



정원식 이사(전 국무총리)에게 공로상을 수여받는 장경석 장군



정원식 이사(전 국무총리)에게 공로상을 수여받는 방호복 장군

2015학년도 전기 입학식 개최

- 시작과 도전을 응원하는 희망 나눔 행사를 펼쳐 입학식의 의미를 되새겨
- 각 학부 및 대학원 신입생 약 400여명이 참가하여 성황리에 개최

우리 대학은 지난 3월 7일(토) 오후 2시 미아동 본교 캠퍼스 차이코프스키홀에서 2015학년도 전기 입학식을 가졌다. 학부 4,217명, 대학원 138명의 학생들이 새로이 서사대인이 된 이날 입학식에는 이상균 이사장과 허묘연 총장, 신일고 이기우 협동교장, 이재웅 협동총장, 강인 협동총장, 박영국 이사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가족상담학과 김요완 교수와 상담심리학과 김지영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입학식은 국민의례와 찬송으로 시작해 학사보고, 신입생 선서, 장학증 수여를 거쳐 축사와 축하공연으로 마무리 되었다. 신입생 선서는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한 상담심리대학원 김정화씨와 사회복지전공 윤성채씨가 각각 대학원과 학부 신입생 대표를 맡았다.

특히 우리 대학은 올해도 학생들의 새로운 시작과 도전을 응원하고 꿈을 키워나가자는

의미로 ‘희망 나눔’ 행사를 펼쳐 입학식의 의미를 되새겼다. 허묘연 총장과 교수진이 각 학과별 학생대표에게 ‘희망 화분’을 전달하며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식후에는 학생대표 및 각 학과별 교수 소개가 이어졌으며, 학과별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었다.

우리 대학은 올해도 다양한 연령, 직업을 가진 이색 입학생들이 많아 눈길을 끌었다. 특별히 최고령 입학생 부동산학과 김용돈씨(74)와 최연소 입학생 경영학과 임영서씨(16)가 58살의 나이 차이를 두고 동기가 됐다. 한편, 이번 입학식은 오프라인 식장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해외에 거주하는 졸업생과 가족들을 위해 온라인으로 생중계 되었다.



희망 화분을 전달하는 모습



차이코프스키홀에서 진행된 입학식



허묘연 총장



선서를 하는 남녀 신입생 대표



꿈을 향한 열정의 시작 전기 신·편입생 오리엔테이션

- 예비 신·편입생 약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
- 문화 공연, 교양강좌 등 문화를 접목한 오리엔테이션으로 큰 호응
- 학교 소개, 대학생활 안내, 학습방법 특강 등 다양한 학교생활정보 제공

오리엔테이션 진행을 맡은 오정해 교수



축하 공연



공연을 즐기고 있는 신·편입생들

우리 대학은 2월 7일(토) 미아동 본교 차이코프스키홀에서 올해 신·편입생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2015학년도 예비 신·편입생 약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사이버 학습환경이 낯선 학생들이 보다 빠르게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학교 및 학생회 소개, 축하공연, 대학생활 안내 등 정보제공 프로그램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특히 명사들을 초청한 문화공연 및 맞춤형 교양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오프닝 무대에서는 영화 서편제의 주인공 오정해 교수(동아방송예술대)가 나와 '봄, 바람 불다'라는 주제로 국악공연을 진행됐다. 이와 더불어 20인조 국악오케스트라인 'A-hope'와 함께 팝송, 가요 등을 판소리버전으로 편곡해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더불어 신입생을 위한 맞춤형 교양강좌도 진행됐다. 음악평론가 장일범 교수를 초청해 '인문학과 클래식'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으며 평소 어렵다고 생각한 인문학과 클래식에 대해 다양한 사례와 공연 영상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강의해 학생들의 관심을 끌었다.



공연을 마친 후 강인 협동총장을 비롯한 교직원과 출연진 기념 촬영

사이버대학 최초 음악학과 신설

- 온·오프라인에서 교수와 학생의 1:1 레슨 및 그룹지도
- 졸업 후 정규 4년제 음악학사 학위 취득

서울사이버대학교 문화예술학부가 올해 음악학과(피아노전공)를 신설하였다. 이를 위해 본교 차이코프스키홀에 최고급 시설과 장비를 갖춘 스타인웨이(Steinway & Sons)피아노와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하고 Yamaha Disklavier를 이용한 국내 최초의 원격 피아노 교육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시설과 함께 최고의 교육을 펼쳐갈 음악학과 교수진의 출사표를 들어보았다.



이경숙 석좌교수
피아노 음악은 정말 아름다운 학문입니다. 이를 함께하는 여러분은 아름다운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피아노 교육을 통해 제2의 기회를 가지고 싶은 분들은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서울사이버대학교와 함께 아름다운 도전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Brief Interview

김나연 교수(학과장)
음악을 사랑하는 법을 같이 배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서울사이버대학교는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온·오프라인 강의를 동시에 진행하는 블렌디드 러닝 교육을 이제 음악으로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여러분과 함께 완성해 나갔으면 합니다.



나정혜 교수
어렸을 때는 음악을 그저 기계적으로 배워나간 면이 많습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제공하는 제2의 기회를 잡으셔서 음악을 좋아하고, 사랑하며, 느끼면서 배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신지연 교수
음악이라는 학문은 인류역사상 가장 오래된 문화 중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문화를 좋은 교수님과 첨단 시스템 안에서 공부하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이지 않을까요? 이런 기회를 마음껏 활용해서 지식뿐만 아니라 생활까지 풍요해지는 삶을 누리보시기 바랍니다.





INDIANA UNIVERSITY

Jacobs School of Music Chamber Orchestra Concert

2015. 3. 21 Seoul Arts Center

인디애나대학교 & 서울사이버대학교 3일 간의 행복한 여정

지난 3월 21일(토)부터 23일(월)까지 서울사이버대학교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인디애나대학교는 행사를 함께 주관하며 두 대학의 파트너십을 더욱 굳건히 하는 시간을 가졌다. 협력 관계를 넘어 함께 발전하는 동반자로서 우정과 친선을 다진 3일 간의 행복한 여정을 지금부터 따라가 보자.



예술의 전당 공연 후 리셉션에서
인디애나 음악대학 챔버오케스트라 단체 기념촬영

“학생 취업능력 키워주는 게 大學의 의무”

[대학 개혁 성공적으로 추진한 美인디애나대 맥로비
총장 인터뷰]



“지금 대학들이 높은 등록금에 걸맞은 교육을 하고 있는가, 대학이 제공하는 교육이 지금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인가를 대학 스스로 끊임없이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현실에 맞게 대학 교육을 개혁해 나가야 하지요.”

최근 한국을 방문한 미국 인디애나 대학교의 마이클 맥로비(McRobbie·65)

총장은 ‘21세기 대학의 역할’에 대해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할 때 사회에서 요구하는 충분한 자격 조건을 갖추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대학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인디애나대는 9개 캠퍼스와 11만5,000여명의 학생, 8,000여명 교수진을 두고 있다. 인디애나대학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 중 중국인(약 3,000명) 다음으로 한국 학생(800여명)이 많을 정도로 한국과 심리적 거리가 가까운 미국 대학이다. 호주 출신으로, 지난 2007년 인디애나 대학 총장으로 임용된 뒤 8년째 학교를 이끌고 있는 맥로비 총장은 한글 명함까지 갖고 있는 대표적 지한파 학자다. 오는 5월엔 인디애나대 글로벌국제학부에 ‘한국학 연구 센터’도 오픈한다.

하지만 인디애나 대학을 눈여겨봐야 할 이유는 다른 데 있다. 인디애나대는 미국 대학 중에서도 사회적 변화에 발맞춰 대학 개혁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학으로 꼽힌다. 인디애나대는 전통적으로 행정대학과 경영대가 강세였지만, 최근 인터넷으로 강의를 수강하고 학위를 딸 수 있는 ‘인디애나 대학 온라인 학부’를 개설하고, 세계 최초로 자선학(Philanthropy) 학부를 만드는 등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2012년 체육학과 보건학, 여가학 등을 결합해 ‘공공보건학부’를 만든 것은 대표적인 학과 구조조정 사례로 꼽힌다. 특히 이공계는 정보학과 컴퓨터학과 등 기존 학과를 재조정해 ‘정보컴퓨터학부’를, 인문계는 기존에 흩어져 있던 지역학과를 결합해 ‘글로벌국제학부’로 합쳤고, 올해부터는 커뮤니케이션과 문화, 저널리즘 등 세부 학과를 모두 흡수한 ‘미디어스쿨’을 만들었다.

맥로비 총장은 “대학은 학생을 취업 시장에서 환영받는 자격을 갖춘 인재로 만들어 낼 의무가 있다”며 “미국에서도 대학 졸업자가 과잉 공급되고 있는데, 학생들이 일정한 자격증을 학위 과정 내에서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학과 조정 등 대학 구조조정이 기초 학문과 실용 학문 간 의도치 않은 괴리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맥로비 총장은 “미국 사회에서도 학생의 경제적 배경에 따른 교육 격차, 치솟는 등록금 문제가 중대한 이슈”라며 “인디애나 대학은 다양한 사회적 배경의 학생들을 입학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방한 중 인천 ‘송도 글로벌 캠퍼스’를 둘러본 맥로비 총장은 “송도 캠퍼스는 매우 흥미로운 시도”라고 말했다. ‘송도 글로벌 캠퍼스’에는 미국 뉴욕주립대와 조지메이슨대, 유타대, 벨기에 겐트대 등 4개 해외 대학이 들어와 있다. 맥로비 총장은 “미국과 유럽 대학이 본교에서 진행하는 커리큘럼과 같은 수준의 교육을 한국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디애나 대학의 한국 진출 여부에 대해선 “아직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Day 1

제이콥스 음대 챔버 오케스트라, 예술의 전당에서 실내악 공연 개최

첫 번째 무대는 예술의 전당 IBK홀에서 펼쳐졌다. 스타인웨이 피아노를 270여 대 보유 하고 있을 정도로 최고의 투자를 하고 그에 맞는 최고의 실력을 갖춘 인디애나대학교 제이콥스 음대의 한국 최초의 실내악 공연을 협력 대학인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주관한 것이다. 이날 음악회에서 제이콥스 음대 챔버 오케스트라는 주옥같은 협주곡들로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하였다.



이은주 부총장과 Susan Sciam-Giesecke,
Indiana University Kokomo Chancellor



인디애나대학교 총장 및 관계자, 본교 투어 및 구리당 만찬 참여

둘째 날은 Michael A. McRobbie 인디애나대학교 총장, Shawn Reynolds 대외부총장 부부, Gwyn Richards 음악대학 학장 부부 등 인디애나대학교 관계자들이 사이버교육의 메카로 인정받는 본교를 방문하였다. 참석자들은 허묘연 총장의 안내를 받으며 첨단 스튜디오, 도서관, 차이코프스키홀 등 본교의 첨단시설을 둘러본 후 구리당에서 만찬을 가지며 친교의 시간을 나누었다.



학교 홍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인디애나대학교 관계자들

Day 2



허묘연 총장과
Barbara Richard & Gwyn Richards 음악대학 학장 부부



공연을 마친 후 인사하는 국수호디뎀무용단과 총 안무를 맡은 국수호 교수

Day 3

인디애나대학교 동문회의 밤, 메달 수여식 및 감사패 전달

마지막은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인디애나대학교 동문회의 밤이 대미를 장식하였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서울사이버대학교는 프로그램 하나 하나 신경을 쓰며 인디애나대학교 관계자들에게 한국에서의 멋진 추억을 선사하였다. 이번 3일 간의 여정을 통해 서울사이버대학교와 인디애나대학교는 더욱 돈독한 우정을 쌓았으며 앞으로도 두 대학의 학교 발전을 위해 함께 협의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March 22, 2015

SEOUL CYBER UNIVERSITY

www.iscu.ac.kr



Dean Gwyn Richards & His Wife Barbara Richards(Indiana University Jacobs School of Music), 고려대학교 염재호 총장, Michael A. McRobbie 총장, 한국국제교류재단 유현석 이사장, 한국예술종합학교 김봉렬 총장, 영산대학교 부구욱 총장, 고려대학교 어윤대 전 총장 내외와 이세웅 명예이사장, 허묘연 총장(가운데)



본교 투어를 마치고 이세웅 명예이사장, 허묘연 총장과의 단체 기념 촬영



선과 함께 찾아가는 나눔과 행복

- 사회복지학부가 주최한 '선' 나눔 특강
- 작은 것을 주고 큰 것을 받는 만원의 기적 소개



특강을 진행 중인 선

우리 대학은 지난 1월 24일(토) 본관 차이코프스키홀에서 힙합그룹 지누선의 멤버 '선'의 특강을 실시했다. 사회복지학부에서 준비한 이번 특강에서 우리 사회의 기부 아이콘으로 오랫동안 선행을 펼쳐온 선은 사회복지의 가치와 핵심개념과 밀접하게 닿아있는 '나눔과 행복'을 주제로 자신의 의견과 경험담을 들려주었다. 이날 선은 가진 게 부족한 환경에서도 기부를 할 수 있겠느냐는 청중의 물음에, "매일 밥 먹듯이 나누는 삶을 살다 보니 물욕이 많이 줄었다"며, "나눔은 크기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연습이 되어야 하고, 아주 작은 돈이라도 그것이 반복이 되면 스스로 행복과 만족을 느낄 수 있게 된다"고 소신을 밝혔다.

현재 선은 만원의 기적을 행하고 있다. 푸르메재단과 함께 바로 365만원, 만명의 후원자를 만나 장애어린이 재활병원을 만드는 것이다. 이타적인 삶을 살아온 선의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고 청중들은 크게 감동했으며 '나눔과 행복'의 의미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는 계기가 된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좌측부터) 이완형 입학처장, 선, 이은주 부총장, 구국모 입학지원실장



SCU-아세안사이버대학 프로젝트 운영위원회 회의



(앞줄 좌측 두번째) 이은주 부총장, 아세안사이버대학프로젝트 사무국장 박종선 교수

한-아세안 사이버대학의 미래를 논하다

- 태국 방콕에서 SCU-아세안 사이버대학 프로젝트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 회원대학과의 신뢰 관계를 더 굳건히 하고 새로운 발전 방향 모색
- 2012년 3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현재 7차까지 진행

서울사이버대학교 아세안사이버대학(ACU) 프로젝트 사무국은 지난 3월 18일(수)과 19일(목) 양일간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7차 운영위원회 회의에 한국 측 대표로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는 한국과 태국 측의 운영위원회 임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아세안사이버대학(ACU) 프로젝트의 주요 성과를 되짚고 2015년도 계획을 논의하여 새로운 발전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 측 대표로는 공동운영 위원장 정윤경 과장과 김주영 사무관 등 교육부 공무원과 더불어 서울사이버대학교 이은주 부총장, 박종선 사무국장, 권구순 운영위원회 간사가 참석했고, 태국 측에서는 Suphat Champatong 운영위원장(태국 고등교육청 부청장), Wirat Lertpaitoonpan 스리파툼 대학교 부총장, Thapanee Thammatar 태국 고등교육청 과장이 참석했다. 열기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이뤄진 첫째 날 회의에서는 아세안사이버대학 프로젝트의 회원대학인 캄보디아 공과대학, 미얀마 기술대학, 라오스 국립대학, 하노이 공과대학(Ngo Minh Phuoc), 스리파툼 대학교 5개 대학이 2014년에 달성한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실질적인 방안을 고민했다. 회원대학들은 공통적으로 새로운 콘텐츠 개발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러닝 서비스 확대에 추가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이어 이튿날 서울사이버대학교 박종선 사무국장은 추가 콘텐츠 개발, 이러닝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현지 교육 지원, 시스템 운영 및 유지 보수, 학습역량 강화 프로젝트 등이 포함된 아세안사이버대학교 프로젝트의 2015년 계획을 발표했다. 회원대학들은 기존의 단점을 보완한 아세안사이버대학 프로젝트의 새로운 계획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서울사이버대학교와의 신뢰를 더 굳건히 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양일간 무사히 본 회의를 마무리한 서울사이버대학교 운영위원회는 태국 출라롱콘 대학(Chulalongkorn University)과 어섬션 대학(Assumption University)으로 이동해 관계자들과 캠퍼스를 둘러보며 친분을 쌓았다. 아세안 전체의 교육 수준을 한 단계씩 높여가고 있는 아세안사이버대학 프로젝트의 발전이 더욱 기대된다.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권구순 교수(왼쪽), 이은주 부총장(세계대학총장협의회 IAUP운영이사, 가운데)

ASEAN STUDY! 교육으로 하나 되는 아시아!

- AUN(아세아대학연합)과 ACU(아세안사이버대학), 아세안학 콘텐츠 개발 워크숍 개최
- 서울사이버대의 사례를 공유하며 ASEAN STUDY 콘텐츠의 수업방식 및 운영모델 협의

지난 3월 27(금)에서 28일(토)까지 양일간 서울사이버대학교 B동 104호에서 2015년 AUN(아세안대학 연합)-ACU(아세안사이버대학) 아세안학 콘텐츠 개발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ASEAN STUDY 디지털 콘텐츠 개발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워크숍에는 아세안대학연합 측에서 Dr. Choltis Dhirathiti 사무차장과 Ms. Naparat Phirawattanakul 최고 프로그램 책임자가 참석하였으며,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태국 등 콘텐츠개발 SME 및 운영 교수 14명, 그리고 아세안사이버대학 관계자와 콘텐츠 개발회사

관계자들이 모여 ASEAN STUDY 콘텐츠의 효과적인 수업방식 및 운영모델에 대해 협의하였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러닝 교육이 주된 관심사로 떠올랐다. 첫째 날, 참석자들은 ASEAN STUDY 프로젝트에서 이러닝의 역할 및 기대효과에 대해 이해를 같이하고, 이를 통한 콘텐츠 개발 전략 및 시연, 그리고 e러닝 원고 개발법에 대해 토의하였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MODC형 콘텐츠 및 선진사례연구, 회원교 수업운영 현황 공유 및 활용방안 등을 논의하고 구체적으로 Blended, Flipped, 모바일을 이용한 ASEAN STUDY 콘텐츠 활용 전략 및 운영 방안에 대해 토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전 카이스트에서 ASEAN STUDY 향후 성과 활용전략을 논의하고 이러닝 활용을 위한 레슨 플랜을 작성함으로써 양일간 이어진 워크숍을 마무리하였다. 한편, 참석자들은 워크숍 기간 틈틈이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첨단 시설 등을 둘러보고 “역시 앞선 교육은 한 발 앞선 투자에서 시작된다”고 입을 모았다.



아세안학 콘텐츠 개발 워크숍 현장



본교 스튜디오를 방문한 참석자들



워크숍을 마치고 강인 협동총장, 이은주 부총장과의 단체 기념 촬영



스웨덴 빅토리아 왕세녀 부부 초청 만찬

- 한서문화예술협회와 주한 스웨덴 대사관이 주최한 만찬에 빅토리아 왕세녀 부부 참석
- 이번 초청 만찬을 통해 한국과 스웨덴의 문화교류가 더욱 돈독해 질것으로 기대

초청 만찬에 참여한 빅토리아 왕세녀

지난 3월 25일(수) 그랜드하얏트호텔 남산룸에서 한서문화예술협회와 주한 스웨덴 대사관이 공동 주최한 ‘스웨덴 빅토리아 왕세녀 부부 초청 만찬’이 개최됐다. 이날의 호스트를 맡은 이세웅 한서문화예술협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빅토리아 왕세녀와 다니엘 왕자를 모신 자리에 함께 있는 게 무한한 영광이고 우리 모두에게 기념비적인 날이다”라고 말하며, 다니엘손 대사 또한 축사에서 “유구한 역사를 바탕으로 형성된 문화는 한국이 지닌 가장 중요한 유산이다”라고 말하며 현재 K-POP을 위시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한류 또한 이런 문화가 밑바탕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하였다. 최고급 식사와 축하 공연이 있는 이 날 만찬에서 빅토리아 왕세녀와 다니엘 왕자는 시종일관 웃음을 잃지 않고 즐기는 모습이었다. 또한 이어진 참석자들과의 기념촬영에서도 지친 기색 하나 없이 인사를 나누며 촬영에 응해 왕실 자손다운 매너를 보여주었다.



행사 호스트를 맡은 이세웅 한서문화예술협회 회장



공동 주최한 다니엘손 주한 스웨덴 대사



(좌측부터) 손성환 주스웨덴 한국 대사, 세종대학교 송현욱 교수, 허모연 총장, 왕세녀 부부내외, 한국현대무용진흥회 육완순 이사장, 주한스웨덴 대사관 Lars Danielsson 대사, 연극배우 윤석화, 한국문화옹성위원회 김동호 위원장, 스웨덴 보건사회부 Annika Strandhäll 사회보장장관



소프라노 신지화와 테너 김재형 듀엣 공연



축하공연을 관람 중인 왕세녀 부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된 만찬의 하이라이트는 식사 후 열린 축하 공연이었다. 소프라노 신지화 이화여대 교수, 테너 김재형, 그리고 피아니스트 이영민 교수의 반주로 이루어진 축하 공연은 왕세녀 부부를 비롯한 참석자 전원이 기립박수를 칠 정도로 깊은 감동을 주었다. 3시간 동안 이어진 이번 만찬행사에서 참석자들은 하나같이 왕세녀 부부의 한국에 대한 사랑 그리고 문화에 대한 관심을 느낄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하며 큰 만족감을 나타내었다.



빅토리아 왕세녀 부부 초청 만찬

내 인생의 화양연화, Seu

여기, 인생의 가장 값진 시간을
서울사이버대와 함께 보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꽃처럼 아름다운 이 시기에 펼쳐지는
서사대인들의 행복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가장 존경받는 군인에서 가장 경쟁력있는 교수로

육사 34기로 1978년 보병 소위로 임관한 이래 소대장, 중대장, 연대장 임무를 수행하고 2004년 장군으로 진급. 국방부장관 군사보좌관, 17사단장, 5군단장 그리고 국방대학 총장, 국방부 국방개혁 추진실장까지! 군인으로서 심용식 교수의 이력은 그 누구보다 화려하다. 그런 그가 이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 바로 서울사이버대학교 군경상담학과 특임교수로서 말이다. 가장 존경받는 군인에서 가장 경쟁력있는 교수로 활약하게 된 심용식 교수를 만나 앞으로 어떤 교육을 펼쳐나갈 것인지 들어 보았다.

저도 군경상담학과 2회 졸업생입니다.

심용식 교수가 서울사이버대학교와 처음 인연을 맺은 것은 당시 군경상담학과 학과장이었던 이정원 교수를 만난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때 저는 17사단장이었고 이 교수님은 군경상담학과를 새로 출범시키면서 군경을 대상으로 학과 소개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던 시절이었습니다. 설명을 들었을 때 초급 군간부들에게 대단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았고 저 역시도 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군경상담학과에 입학하였고 2회 졸업생이 되었습니다.”

젊고 패기 넘치는
부하들을 상대해야 하는
간부들에게 있어
상담 전문지식 습득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군경상담학과 이정원 교수와 심용식 교수

군경을 대상으로 특화된 국내 유일의 학과입니다.

자신이 직접 입학하여 공부를 하고 보니 더욱 군경상담학과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한다. 군경을 대상으로 한 국내 유일의 학과로서 경쟁 상대가 없으나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도 함께 말이다. “20대 초반의 젊고 패기 넘치는 부하들을 상대해야 하는 간부들에게 있어 상담에 대한 전문지식 습득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이버교육은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군인들에게 맞춤형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심 교수는 군경상담학과의 또 다른 경쟁력은 총장님을 비롯한 많은 교수들이 학생들이 생활하는 현장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자신 또한 군인으로서의 경험을 되살려 더욱 학생들과 친밀한 유대 관계를 이어갈 것임을 다짐했다.

일취월장하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존경받는 군인으로서, 군경상담학과를 직접 경험한 동문으로서, 심용식 교수는 그 누구보다 군경상담학과에 꼭 필요한 인재이다. 그런 그가 펼쳐나갈 학문의 세계는 어떠할까? 심 교수는 무엇보다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한다. “군경상담은 어느 학문보다 현실성이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 대학 총장님을 비롯한 교수님들이 전후방 부대를 쉽 없이 방문하는 이유도 무엇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인가를 파악하여 교육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군인으로서의 경험이 자신에게는 큰 자산이라며 말을 이어 갔다. “훈련의 연속이고 항상 대기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군경상담학과 학생들에게는 공부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열심히 하면 분명 여러분 스스로 일취월장(日就月將)이라는 단어의 뜻을 체득하게 될 것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 교육 창출, 함께 합시다!

- 서울사이버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와 콘소시엄으로 르완다 국립대학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참여
- 본교의 첨단 교육 인프라 현황 파악을 위해 방문

Interviewee
주한 르완다대사 엠마 프랑수아 이슌빙가보



오늘 본교에 어떤 계기로 방문하시게 되었나요?

한국정부가 차관으로 지원하는 르완다 국립대학의 인프라 개발프로젝트 중 컨설팅 사업부문 입찰에 서울사이버대가 숙명여대와 콘소시엄으로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사이버대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방문하게 됐습니다.

르완다에 대해 간단하게 국가 개요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르완다 공화국은 동아프리카에 위치해 있고 수도는 키갈리입니다. 프랑스어와 영어, 그리고 토속어인 키냐완다어가 공식언어로 사용되고 2.6만km²(남한의 약 1/3)의 국토에 1,200여만명의 인구가 밀집되어 살고 있습니다. 1인당 GDP는 약 1,538달러 수준입니다.

대사님께서 재임 중에 양국의 우호증진을 위해 중점을 두거나 발전시키고자 하는 분야가 있으신지요?

르완다와 한국은 1963년 공식외교관계가 수립된 이래로 매우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의 발전은 양국 정상의 상호국빈방문으로 공고해졌을 뿐만 아니라, 다자외교에서도 상호 지원을 지속해 온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 통상, 투자, 기술지원 및 역량강화 부문에 협력이 이뤄지고 있는데 경제협력은 그 중에 가장 핵심 분야라고 할 수 있고 이는 교육과 농업, ICT 분야와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국과 르완다는 분단과 내전이라는 현대사의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르완다는 종족 간 갈등을 극복하여 화합을 도출했고 성공적으로 국가를 재건하였습니다. 이러한 화합의 과정이 지금의 한반도 문제에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긴 설명보다 핵심을 말씀 드리자면 르완다가 성공적인 화합을 이루기까지 걸렸던 긴 여정은 서로를 배려하는 리더십과 미래의 비전을 공유한 거버넌스가 갖춰졌고 이러한 기반 하에 국민들 모두가 함께 노력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대사님께서 전기공학을 전공하여 천연자원부의 차관을 지내셨고 중·고교와 대학에서 직접 교편도 잡으셨는데, 왠지 외교관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는 이력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험들이 대사직을 수행하는데 어떤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르완다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일한다는 것은 르완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고대하고 희망하는 가장 최고의 경험이라고 할 수



본교 이러닝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 이슌빙가보 대사

있습니다. 제 생각에 교육공무원 이력과 3년간 르완다 정부의 고위공무원으로 근무했던 경험은 어떤 직무라도 감당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본교를 방문하셨는데 어떤 인상을 받으셨는지요? 그리고 우리 대학이 르완다의 교육, 특히 이러닝 분야의 발전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인프라와 교육과정의 우수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훌륭한 대학을 방문하게 되어 영광이고 서울사이버대가 모국의 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르완다는 디지털국가로의 발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ICT분야에 많은 발전이 있었고 그 효과가 농촌까지 파급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사이버대와 같은 우수한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우리 국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무수한 기회들을 창출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꿈을 향해 한 걸음 앞서 시작합니다

- 열 여섯 살 임영서 학우, 최연소로 경영학과 입학
- 스터디 모임, 동아리 활동, MT 등 다채로운 대학 생활에 기대감 밝혀

열 여섯 소녀의 꿈을 향한 결심

2000년 생, 포래들은 이제 중학교 3학년인 나이에 서울사이버 대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올해 경영학과에 입학한 임영서 학우.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된 계기가 궁금했다. “좀 더 빨리 제 꿈을 향해 전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홈스쿨링으로 전환했고 작년 4월에 중학교, 8월에는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합격하고 올해 서울사이버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멋진 추억으로 그려질 행복한 미래

인터뷰를 하면 할수록 임영서 학우는 영락없는 꿈 많은 소녀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룰 매개체는 바로 서울사이버 대학교라고 말한다. “경영학과 스터디 모임도 바로 들었고, 동아리 활동, MT 등 학교 행사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멋진 추억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꿈이 엔터테인먼트 분야인데 나중에는 복수전공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해서 장학금도 받고 싶고요, 앞으로 펼쳐질 대학생활이 무척 기대가 됩니다.”

학교행사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대학생활의
멋진 추억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복지란 편견과 선입견이 없는 것입니다

- 남편의 권유로 휴먼서비스대학원에 입학한 고창순 학우
- 체계적인 교육과 교수님들의 열정적인 강의에 매료

부부가 함께 휴먼서비스대학원 동문

올해 휴먼서비스대학원에 입학한 고창순 학우에게 서울사이버 대학교는 낯설지 않다. 남편(최성균, 2014년 졸)이 작년에 동 대학원을 졸업한 동문이기 때문이다. “남편이 청각장애가 있어 오프라인 수업이나 행사가 있으면 늘 동행해서 수업을 도와주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사이버대의 사회복지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커리큘럼에 감명을 받았어요. 교수님들의 열정 또한 대단하셨고요. 특히 강의 수강 시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때 전화 한 통이면 바로 원격으로 조치해주는 등 교육 서비스도 무척 훌륭했지요.”

복지의 기본은 선입견과 편견이 없는 것

고창순 학우의 복지에 대한 생각은 확고했다. “복지의 기본은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거나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모든 사람은 똑같이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 이것이야말로 제가 꿈꾸고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복지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커리큘럼과
교수님들의 열정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기부하는 날이 '기념일'이 아니라 '매일'이었기에 이러한 큰 상을 받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부는 생활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 2014 국민 추천 포상제에서 국무총리상 수상한 서태호 학우
- 꽃집 운영 18년 동안 약 1억원 상당의 꽃을 기부

꽃으로 기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새롭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 측에 기부를 한 분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꽃을 보내자고 아이디어를 내었는데 무척 반응이 좋았습니다. 지금은 꽃 기부를 헌혈캠페인, 대학 축제 행사 등 다양한 곳에 18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작년 국민추천포상제 시상식에서 국민들의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상까지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저를 추천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학우님이 생각하시는 기부란 무엇일까요?

서울사이버대 복지시설경영전공에 입학한 것도 꼭 필요한 곳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저만의 맞춤형 기부프로그램을 직접 만들고 싶어서입니다. 또한 훗날 꽃과 관련한 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입학하였습니다. 기부란 습관이고 생활이어야 합니다. 계산해보니 작년에 제가 약 2천만 원 상당의 꽃을 기부했어요. 이는 기부하는 날이 '기념일'이 아니라 '매일'이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부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셨으면 합니다.



보다 깊이 있는 사회복지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에게 휴먼서비스대학원은 최고의 선택입니다

장애우도 민주시민으로 키웁니다

-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한 보령정심학교 교장 권선자 동문
- 장애우도 일반인과 같은 민주시민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

보령정심학교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보령정심학교는 지적장애아동들을 교육하는 특수학교입니다. 초·중·고등교육과정과 취업 실무를 위한 전공과정까지, 현재 77명의 학생들이 있고 교직원 53명이 있습니다. 교직원 모두 학생중심교육을 목표로 장애아동도 사회에 나가서 비장애인 어른들과 같은 민주시민으로서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다하는 사람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그 노력을 인정받아 작년에는 보령정심학교 이름으로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구요. 그리고 저는 이곳에 35년간 근무하며 교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동문님께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어떠한 곳입니까?

제가 교육현장에 있으면서 '교육은 곧 복지'라는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그래서 휴먼서비스대학원에 문을 두드렸고 그 선택은 옳았습니다. 스터디 모임을 하면서 나 중심이 아닌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계획하여 나아가야한다는 것을 배웠으며 이는 실제 학교 경영에도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보다 깊이 있는 사회복지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서울사이버대학교 휴먼서비스대학원은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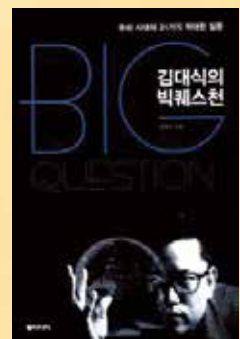
KAIST 김대식 교수 특강, ‘뇌, 현실 그리고 인공지능’

- 향후 20~30년 후에는 현존 직업의 47%가 사라져
- 인공지능의 발달에 대비하여 교육 방향도 변화해야

우리 대학은 Olleh, Skylife와 함께 2015년 인문학 특강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다.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지난 4월 10일(금)에는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김대식 교수의 ‘뇌, 현실 그리고 인공지능’ 특강이 본교에서 있었다. 김대식 교수는 뇌인지과학과 인공지능 연구이야기에서 시작해서 미래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강의를 통해 미래사회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였다.

불과 3~4년 전만 해도 인공지능은 공상과학 영화의 주제에 불과했지만 ‘사람처럼 직접 학습하는 딥러닝’의 혁신적 성공 사례들 덕분에 멀지 않은 미래에 기계가 인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정보를 처리하고 이해하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인간과 가축의 물리적 노동력을 대체했던 1차 기계혁명에 이어 지능을 대체할 2차 로봇혁명이 임박했다고 설명하면서, 인공지능의 현실화는 인류 역사에 경제·사회·노동시장·정치·문화의 본질적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이 같은 격변기에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회계사, 비행기 조종사 등 현재 직업의 47%가 20년 내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우리의 교육도 지금과 같은 단순 암기나 계산능력 향상보다 창조성과 인간적 감성, 그리고 판단 능력 등 인지능력 향상의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특강을 마무리했다.



BOOK
추천 도서

우리 시대의 31가지 위대한 질문,
김대식의 빅퀘스천

유쾌한 IT 지식나눔, 〈스크래치〉 교육 봉사

- WAVE 봉사단,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무료 스크래치 코딩 교육 실시
- 프로그램 정의부터 활용까지, 눈높이 맞춤형 강의로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어



눈높이 교육을 하는 이성태 교수

서울사이버대학교 WAVE 사회봉사단은 지난 2월 24일(화) 특별한 지식나눔특강, ‘Pro Bono’ IT 지식나눔 〈스크래치〉 교육봉사를 A동 5층 스튜디오에서 실시하였다.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이번 특강은 올해 중학교 의무교육예정인 스크래치 코딩교육을 무료로 가르쳐 주는 강의로 50여명의 학생들이 강의실을 꽉 채워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스크래치는 이야기와 게임, 애니메이션을 직접 만들어 전 세계인들과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미국 MIT 대학이 개발하였다.

재능기부 형식으로 강의를 맡은 이성태 문화콘텐츠공학과 교수는 “스크래치 프로그래밍 원리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쉽게 이해하도록 도와주어 게임처럼 즐겁게 배우고 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강의를 마련했다”면서 특강의 목적에 대해 설명하였다.



특강을 마친 후 단체 기념 촬영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남상규 교무지원실장

남상규 교무지원실장,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 수상

• 2007년부터 대학 역량 평가·인증 및 본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 인정받아



우리 대학 남상규 교무지원실장(겸 대학발전추진단 부단장)이 교육부가 선정하는 대학 자체평가 및 평가·인증 유공자 표창(황우여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지난 1월 2일 전체 교직원회의에서 총장으로부터 표창장을 전달받았다.

남상규 실장에게는 2007년 교육부 원격대학 종합평가와 2013년 사이버대학 역량평가에서 대학자체평가위원으로 활동하여 소속 대학이 우수한 평가를 받는데 기여하고, 2009년부터 2년 주기 대학자체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대학발전에 기여하였으며, 2013년

사이버대학 역량평가에서는 지표개발연구위원으로도 활동한 공적이 인정되었다.

이 표창의 목적은 「고등교육법」제11조의2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대학자체평가 및 평가인증 담당 유공자를 발굴하여, 그 공적을 치하함으로써 대학 구성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우수사례 확산 및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데 있다.

금번 표창은 전국 350여개 대학의 총·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교육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선정된 10명의 최종 후보자들에 대해 일반의 공개검증 절차를 거침으로써 표창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였다.

서울사이버대 WAVE 사회봉사단, 우수 봉사단원 표창

• 김영민 교수, 허재현 교수, 구국모 입학지원실장, 이남운 동문, 헌신적인 봉사활동으로 수상

우리 대학은 지난 2월 23일(월), 2014년 한 해 동안 WAVE 사회봉사단원으로서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펼친 이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시상식이 개최되었다. 그 주인공으로는 국제무역물류학과 김영민 교수, 보건행정학과 허재현 교수, 입학홍보팀 구국모 입학지원실장, 그리고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이남운 동문 등이다. 이들은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 다문화가정 가족사진 촬영, 헌혈캠페인 등 작년 한 해 WAVE 사회봉사단이 펼친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서울사이버대학교의 명예를 드높이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시상을 한 강인 협동총장(현 WAVE 사회봉사단장)은 축사에서 “봉사의 사전적 의미가 ‘남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애씀’이라고 한다. 오늘 수상하신 분들이야말로 이러한 봉사의 의미를 가장 잘 살리신 분들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분들 이외에도 봉사에 참여한 많은 WAVE 사회봉사단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좌측부터) 김영민 교수, 허재현 교수, 구국모 입학지원실장

제3회 SCU 골프동아리 장학금 수여식

• 8년의 역사를 지닌 골프동아리, 3년 째 우수 학생 장학금 기부



SCU 골프동아리 장학금 수여식 현장

지난 2월 24일(화) 서울사이버대학교 A동 국제회의실에서는 SCU 골프동아리 장학금 수여식이 있었다.

이번에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총 3명으로 경영학과 이예은 학우, 상담심리학과 강세경 학우, 복지시설경영학과 고은정 학우 등이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SCU 골프동아리 8대 회장 김우현 학우, 박종선 지도교수, 9대 회장 김상용 학우 및 각 수상자 학과 교수들이 참석하여 선발된 장학생을 축하해 주었다.

김우현 회장은 축사에서 “8년의 역사를 지닌 SCU 골프동아리가 앞으로 더욱 더 많은 장학사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피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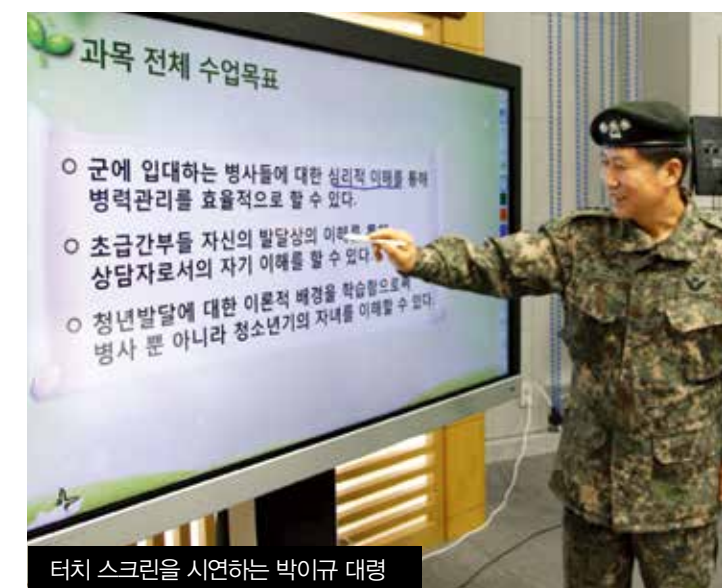
수여식을 마치고 수상자와 교직원들의 기념 촬영



견학을 마치고 을지부대 간부 일행과 강인 협동총장 및 교무위원 기념 촬영

12사단 을지부대, 서울사이버대학교 최신 시설 견학

- 최신 현대기법이 적용된 현장으로 본교를 찾아
- 병영 환경개선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간부 교육



터치 스크린을 시연하는 박이규 대령

지난 1월 22일(목)에서 23일(금)까지 양일간 육군 12사단 소속 을지부대 간부들이 본교를 방문하여 최신의 현대기법으로 적용된 현장을 견학하였다.

병영 환경개선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체험식 간부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이번 방문에 박이규 대령, 김현철 소령을 비롯한 을지부대 간부 160명은 본교의 스튜디오, 회의실 및 강의실 등을 견학하였다.

을지부대 박이규 대령은 직접 터치 스크린 수업을 시연해 보며 “이러한 최고의 시설이 있기에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이러닝 교육이 최고가 될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인사말을 전했다.

서로에게 멘토가 되어주는 행복한 시간

- 멘토링 평가회, 총 47명의 멘토들에게 인증서 수여, 우수 멘토 & 멘티 시상식 진행
- 2015학년도 1학기 새롭게 멘티가 된 학생들에게 성공적인 멘토링을 위한 결연식 개최

지난 2월 28일(토)에는 2014학년도 2학기 SCU 멘토링에 참여한 멘토 & 멘티를 격려하는 평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평가회에서는 총 47명의 재학생 멘토들이 인증서를 받았고 231명의 멘티들이 참여하였다. 이 중 우수 멘토 8명과 우수 멘티 6명에 대한 시상과 그들의 활약상을 그린 포토폴리오 4편에 대한 시상이 이루어졌다.

한편, 3월 7일(토)에는 새롭게 멘티가 되는 학생들을 위한 멘토링 결연식이 있었다.

이날 결연식에서 전광호 학생처장은 멘티가 지녀야 할 요건 및 성공적인 멘토링에 대해 학생들에게 설명하고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하였다.



새로운 멘티들을 교육 중인 전광호 학생처장



멘토링 평가회를 마치고 강인 협동총장과의 기념 촬영

NEWS

지역모임

서울
중서부
지역

신년 산악회, 신년 걷기대회, 신·편입생환영회 행사 개최

서울사이버대학교 서울중서부지역학생회에서 지난 3월 13일(금) 신·편입생 환영회를 트레인스 뷔페에서 개최하였다. 이 날 행사에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중서부음악밴드(대표 양만혁 학우)로 공연, 중서부지역 담당 교수님 소개, 선후배 간의 인사 등 다채로운 행사를 펼치고 새로이 서사대인이 될 것을 한마음으로 축하하였다. 중서부지역학생회는 서울 마포, 서대문, 용산, 은평, 종로, 중구의 학생들이 주축이 된 모임으로서 좋은 사람 중서부명상산악회, 중서부 스터디, 중서부음악밴드 등 다양한 동아리 활동으로 유명하다.



서울중서부지역 학생회 신·편입생 환영회 단체 기념촬영

경기
서부
지역

함께 하는 행복, 하나 되는 경기서부!

김포, 고양, 일산, 파주, 문사, 법원, 벽제 등의 지역의 학생들을 아우르는 경기서부지역학생회가 입학시즌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였다. 3월 7일(토) 본교 미아캠퍼스에서 개최된 입학식에서 어느 지역보다 열렬히 신·편입생들을 맞이한데 이어 3월 20일(금)에는 이완형 입학처장, 전광호 학생처장, 홍선관 교수 등 경기서부지역 담당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편입생 환영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경기서부지역학생회는 매월 셋째 주 토요일마다 장애인 복지시설인 김포 누림홀에서 나눔을 펼치고 있어 보다 따뜻하게 서로 간의 정을 쌓아가고 있는 학생회로 유명하다.



입학식에서 신입생을 맞이하는 경기서부지역 사회복지전공 학생들

문화행사

이향아 교수, 전시회 7인전 참여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이향아 교수가 지난 3월 17일(화)에서 3월 21일(토)까지 북서울꿈의숲 아트센터 드림갤러리에서 개최된 전시회 7인전에 참여했다. 디자인 학계의 교수와 디자인 실무 아트디렉트 7인이 모여 자신만의 논리와 생각을 시각화하여 환원시킨 작품을 개인전을 통해 보여준 이번 전시회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느끼는 삶의 다양성을 감각적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기획 전시이다.

전시회에서 이향아 교수는 우리 주변의 색채와 우리나라 고유의 민화 문양이 가지는 상징성에 주목했다. 빨주노초파남보, 금색, 은색 등 각각의 색이 상징하는 의미를 생각하고 이를 민화 문양과 오버랩하여 '복(福)', '부(富)', '장수(長壽)' 등 인간들이 바라는 소망을 자신만의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창조한 것이다.



전시회 포스터와 전시된 이향아 교수 작품들

성남아트센터 신년음악회 개최

우리 대학은 지난 2월 6일(금) 성남아트 센터 콘서트홀에서 2015 신년음악회를 개최했다. 웅장하고 화려한 오페라 음악의 진수를 만끽할 수 있었던 이날 공연은 클래식을 사랑하는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으며 새해를 맞이하는 '시작'의 의미에 걸맞게 활력이 샘솟는 감동과 울림을 선사했다.

서울대학교 김덕기 교수의 지휘 하에 출연진들은 성남시립교향악단의 격조있는 연주와 어우러져 솔로곡부터 단체곡까지 풍부한 레퍼토리로 아름다운 하모니를 빚어냈다. 신년음악회 1부는 한국민요, 베르디, 푸치니의 곡으로 9곡을 공연했고, 2부에서는 모차르트, 비제, 들리브의 곡으로 6곡을 공연했다.



신년음악회에 참석한 교직원 기념촬영

무용예술의 허브, SCU

2월 25일(수) 본교 A동 스튜디오1에서 2015년 상반기 국내 합동 '댄서스잡마켓' 오디션이 개최됐다.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이사장 박인자)가 주관하는 이번 오디션은 댄서스잡마켓(Dancers' Job Market)은 공연에 출연할 무용수가 필요한 무용단체와 춤을 출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있는 무용수를 연결해 주는 공개 오디션이다. 이는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의 주력 사업 중의 하나로, 우수 무용수를 발굴하여 무용단체와 연결에 성공하여 해마다 좋은 결실을 맺어 왔다.

이번 댄서스잡마켓은 작년까지 합동오디션과 병행해 오던 상시 오디션 선발 방법이 아닌 상·하반기 두 차례로 나뉘어 합동오디션으로만 진행되기에 참석자들은 긴장된 분위기에서 자신의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2015 댄서스잡마켓 오디션 현장

조선명탐정 : 사라진 놈의 딸 시사회

2월 12일(목) 청량리 롯데시네마에서 조선명탐정 '조선명탐정: 사라진 놈의 딸' 시사회가 열렸다. 이번 시사회는 서울사이버대학교 입학처에서 서울사이버대학교 신·편입생을 초청한 이벤트로 총 100명에게 1인 1매의 초대권을 배부하였다. 외화 흥수 속에서도 500만 명 가까운 관객을 끌어 모은 전작의 신드롬에 이어 이번 영화는 스케일을 한층 더 키워 기대를 불러 모았다. 오락성과 볼 거리가 풍성한 '조선명탐정: 사라진 놈의 딸'을 관람한 서울사이버대학교 신·편입생들은 '유쾌하다', '전작보다 재밌다'는 감상평을 밝혔다. 한편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신·편입생과 재학생들의 문화생활을 독려하기 위하여 영화시사회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체험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사회에 참여한 신·편입생들

교내행사

SCU 교수법의 시작, 2015 브라운백 미팅



2015 브라운백 미팅 현장

서울사이버대학교의 2015 브라운 백 미팅(Brown-bag meeting)이 2월 10일(화)과 24일(화) 양 일간 B동 205호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브라운 백 미팅은 박종선 교수가 '수업운영 모니터링 결과보고'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며 시작되었다. 2013학년도 1학기에서 2014학년 1학기 동안 본교에서 한 과목 이상 수강했던 학습자와 교수자, 과목, 학습과정, 그리고 학습 결과의 특성을 바탕으로 학습 분석 방법의 하나인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통하여 이와 연관된 관계를 탐구하였다. 참석 교수들은 이러한 발표를 토대로 열린 토론을 펼치며 보다 나은 교수 방법을 위한 의견을 공유했다.

2015학년도 외래 교원 오리엔테이션 개최



외래교원 특강을 진행 중인 김요완 교수

지난 2월 10일(화) 본교 B동 105호에서 2015학년도 외래교원 오리엔테이션이 개최됐다. 이 날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기 전 교수들의 원활한 수업운영을 위해 학사일정, 학칙, 학습관리시스템(LMS)의 활용, 시뮬솔루션 등에 관한 항목을 설명하였으며, 가족상담학과 김요완 교수를 초청한 특강을 통해 원격교육 교수자의 효과적인 수업운영 방법을 공유하였다.

김선일 목사 감사패 전달식



전달식 후 김선일 목사와 강인 협동총장

지난 2년 동안 교직원 예배를 인도한 김선일 목사의 감사패 전달식이 2월 16일(월)에 있었다. 전달식에서 강인 협동총장은 "그동안 교직원들을 신앙 성장과 영적인 삶으로 이끌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한편, 앞으로 박영국 목사(서울사이버대학교 이사, 해방교회 목사)가 2주에 한 번씩 본교 국제회의실에서 교직원 예배를 인도한다.

언론소식

서울사이버대, SBS 생방송 투데이에 소개



생방송 투데이 방송 장면

지난 1월 27일 SBS 생방송 투데이에서 서울사이버대학교 재학생들의 이야기가 방송되었다. 직장인 '열공'시대로 방영된 이번 방송은 업무 역량과 활동역량을 높이기 위해 제2의 전공을 선택한 다양한 본교 재학생들의 이야기가 소개되었다. 이완형 입학처장은 방송에서 "자신의 전공의 깊이나 넓이를 더 하기 위해서 다른 전공들을 결부해서 공부하고자 하는 목적과 욕구가 많이 늘어났다"면서 그러한 학생들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해 최상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외빈방문

유럽연합집행위원회와 TEIN협력센터 관계자 방문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Dr. Lellis Braganza EC 개발협력부 선임행정관, TEIN협력센터 김병규 국장 등 관계자들이 지난 3월 11일(수) 본교를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아시아 20개국이 참여하는 초고속 연구정보망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유럽연합집행위원회와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이러닝 개발사업에 대한 상호 간 이해를 넓혔으며, 올해 5월 본교에서 아시아 16개국의 국가연구정보망 책임자와 주요 대학 이러닝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워크숍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시범사업에 대한 콘셉트를 함께 수립하기로 하였다.



본교 투어를 마친 후 이은주 부총장(좌측 네번째)를 비롯한 교무위원과의 기념 촬영

특강소식

사회복지학부 컴초보 오리엔테이션



컴초보 오리엔테이션 현장

사회복지학부에서는 지난 1월 31일(토) 본교 A동 5층 스튜디오3에서 2015학년도 신·편입생을 위해 컴초보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였다. 사회복지학부가 신·편입생을 위한 토요특강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오리엔테이션에는 약 60여명의 학생들이 참석하여 큰 관심을 보였다. 참석자들은 이번 특강을 통해 본교 홈페이지 사용은 물론 인터넷 환경과 포털 사이트 접속 등 컴퓨터 운영 전반에 대해 배우며 컴퓨터에 보다 더 친숙해질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성균관대학교 신정근 교수 특강



특강을 진행 중인 신정근 교수

지난 3월 7일(토) 차이코프스키홀에서 성균관대 동양철학과 신정근 교수를 초빙해 '동양철학, 인생과 맞장 뜨다'란 타이틀로 특강을 개최하였다. 신정근 교수는 '파괴, 모험, 도전, 독립, 창조, 선언, 기획과 꿈'이라는 7개의 키워드를 선정하여, 동양의 철학과 정신이 효도와 수양에 국한되지 않고, 서양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힘차게 비상해 왔는지 들려주었다. 이번 신정근 교수의 특강은 철학, 과학, 문학, 예술을 모두 포함한 인문학 강좌로 청중들에게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선사하였다.

교수동정



구희정 교수 보육교사 관련 논문 게재

상담심리학과 구희정 교수는 2015년 1월 31일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에 「사이버대학교 예비보육교사의 교직선택 동기 및 교육만족도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게재하였다.



김동환 교수 운영위원장 및 심사위원 선임

부동산학과 김동환 교수는 3월, 부동산학 관련 전통학회인 (사)대한부동산학회에 부회장겸 운영위원장으로 선정되었고,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에서 관리하는 '행정자치부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사업자선정 기술평가위원회'의 심사위원으로 선임되었다.



김미주 교수 논문 게재 및 위원장 선임

보건행정학과 김미주 교수는 2014년 12월 30일 발간한 『한국학교보건학회지』에 「외국의 건강증진학교 효과에 대한 체계적 고찰」이라는 논문을 게재하였고, 2015학년도 교육부 운영 전국 건강증진학교의 중앙컨설턴트 위촉 및 연구콘텐츠개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



김영민 교수 무역 및 물류 학술지 평가 관련 논문 게재

국제무역물류학과 김영민 교수는 2015년 2월 28일 한국무역학회가 발행하는 『무역학회지』에 「국내 무역 및 물류관련 학술지의 중요도 평가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공동으로 게재하였다.



김요완 교수 탈북가구 관련 논문 게재

가족상담학과 김요완 교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탈북1인 가구의 남한생활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라는 논문을 공동으로 발표하였다.



김용희 교수 지역구조분석 관련 논문 게재

부동산학과 김용희 교수는 2014년 12월 31일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에서 「강원도지역의 지가에 기반한 지역구조분석」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김윤나 교수 다문화 및 청소년 관련 저서 출간

청소년복지전공 김윤나 교수는 『다문화 오디세이』(양서원), 『청소년활동론』과 『청소년프로그램개발과 평가』(신정출판)를 공동 출간하였고, 학업중단 다수발생학교 컨설턴트 교수로 위촉되었다.



김현아 교수 탈북가구 관련 논문 게재

상담심리학과 김현아 교수는 2014년 12월 3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탈북1인 가구의 남한생활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박병석 교수 학술 논문 발표

국제무역물류학과 박병석 교수는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제14집 1호(2015년 3월)에 학술논문 「중국 학계의 전통시대 중국 중심 세계질서 연구 현황과 「중국패권의 뿌리와 이념」(이춘식 저) 비평」을 발표하였다.



박태정 교수 마을공동체사업 관련 논문 게재

복지시설경영전공 박태정 교수는 2014년 11월 30일 발간된 인문사회과학연구지에 「마을공동체사업의 프로그램논리모형에 관한 연구-서울특별시 강북구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게재하였다.



박형원 교수 논문 발표 및 저서 출간

아동복지전공 박형원 교수는 2014년 11월 28일 '2014 한국인구학회 후기 학술대회'에서 「영국의 아동돌봄체제연구」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하였고, 2015년 2월 7일 「가족복지론」(학지사)을 공동저자로 출간하였다.



서영수 교수 자동차보험 관련 논문 게재

금융보험학과 서영수 교수는 2014년 12월 30일 과학문화전시대디자인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한국과학예술포럼』에 자동차 보험 데이터를 이용한 포아송과 음이항 분포모형 비교연구」라는 논문을 게재하였다.



오창환 교수 인간학 관련 저서 출간

컴퓨터정보통신학과 오창환 교수는 2015년 1월 30일 「인간과 성공」(한국학술정보(주))을 출간하였다.



옥 정 발달심리학 및 임상심리사 저서 출간

상담심리학과 옥정 교수는 4월 15일 「인간의 발달」(학지사)을 출간하였고, 2월 12일과 4월 22일에 각각 「임상심리사 2급 필기서」, 「임상심리사 2급 실기서」(정훈사)를 이우경, 한수미 교수와 공동 출간하였다.



이우경 교수 ADHD 아동 관련 논문 게재 및 임상심리사 수험서 출간

상담심리학과 이우경 교수는 SCI 저널인 'Journal of Attention Disorders'에 "Comparative Effects Emotion Management Training and Social Skills Training in Korean Children With ADHD"라는 제목의 논문을 공동저자로 게재하였고, 2월 12일 「임상심리사 2급 필기서」, 4월 22일에는 「임상심리사 2급 실기서」(정훈사)를 옥정, 한수미 교수와 공동 출간하였다.



이은주 교수 논문 발표 및 논문 게재

사회복지전공 이은주 교수는 2014년 11월 28일 '2014년 한국인구학회 후기 학술대회'에서 「미혼여성의 산부인과 방문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하였고, 2014년 12월 30일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지」에 「여학생의 이성교제 경험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어머니의 태도를 중심으로」라는 논문과 2014년 12월 31일 과학문화전시대디자인연구소에 「사이버대학 학생들의 일과 학업의 조화를 위한 적응과정」이라는 논문을 게재하였다.



이의신 교수 음악축제 관련 논문 게재 및 부회장 선임

문화예술경영학과 이의신 교수는 2014년 11월 28일 「한국콘텐츠허브학회지」에 「윤이상의 음악세계로 살펴본 통영국제음악제의 발전 방향」 논문을 게재하였고, 2015년 1월 〈한국이벤트컨벤션학회〉홍보부회장 선임, 3월에는 〈의정부음악극축제〉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이정원 교수 군상담 관련 논문 게재

군경상담학과 이정원 교수는 2014년 11월 30일 「위기관리이론과실천학회지」에 「그린캠프 입소자를 위한 문제해결치료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라는 논문을 게재하였고, 2015년 1월 31일 「한국디지털정책학회지」에 「군에서의 자기계발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라는 논문을 게재하였다.

교수동정



이향아 교수
디자인 작품 전시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이향아 교수는 한국디자인 공예교육학회에서 주관한 작품전시회에서 “꽃”을 주제로 작품을 출품하여 2014년 12월 16일부터 21일까지 전시하였고, 한국디자인협회에서 주관한 작품전시회에서 “한국의 이미지”을 주제로 작품을 출품하여 2014년 12월 27일부터 31일까지 전시하였다. 또한 한국디자인문화학회에서 주최한 작품전시회에서 “Seoul Cyber University”라는 주제로 작품을 출품하여 2015년 1월 21일부터 23일까지 일본 오키나와 현립예술대학교에서 전시하였다.



이희연 교수
논문 발표 및 논문 게재

청소년복지전공 이희연 교수는 2014년 10월 17일 '2014년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학교내 사회복지사의 사례관리 수행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하였고, 2014년 11월 28일 '2014년 한국인구학회 후기 학술대회'에서 「지역사회교육전문가의 학생인권 관련 인식」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2014년 12월 30일에 『학교사회복지』에 「초등학교 학교사회복지사의 사례관리실천경험」, 『한국법과 인권교육학회』에 「교육복지사의 학생인권 관련 인식 및 경험」이라는 논문을 각각 게재하였다.



임세희 교수
아동사교육비 관련 논문 게재

아동복지전공 임세희 교수는 2014년 12월 31일 'The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에 「아동사교육비와 부모양육행동의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고소득집단과 저소득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라는 논문을 공동연구자로 게재하였다.



채정민 교수
북한주민 관련 논문 게재

상담심리학과 채정민 교수는 2014년 12월 31일 「국제문제연구학회」에 「북한주민에 대한 효과적인 블렌디드 러닝 방안과 정책방향」이라는 논문을 게재하였다.



전호진 교수
논문 발표 및 논문 게재

금융보험학과 전호진 교수는 2014년 11월 25일에서 26일까지 개최된 '2014 KIEP 신흥지역연구 통합학술회의'에서 「국제유가 변동이 러시아 에너지 기업의 주식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하였고, 2014년 12월 12일에서 15일까지 열린 '한중 경제협력의 도약과 뉴 로드맵 :공생과 창조학술대회'에서 「러시아 에너지 기업의 경영성과(재무성)와 국제유가」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하였다. 2014년 12월 31일 『한국동북아경제학회』에 「국제유가 변동이 러시아 에너지 기업의 주식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라는 논문을 게재하였다.



최혜라 교수
논문 발표 및 논문 게재

상담심리학과 최혜라 교수는 2014년 11월 7일에서 8일까지 개최된 '2014 한국평생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에서 「사이버대학생의 학업으로 인한 심리적 문제의 심각성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하였고, 2014년 11월 21일 '한국콘텐츠학회 2014 추계 종합학술대회'에서 「사이버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 학업지연, 학업소진간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하였다. 또한, 2014년 11월 30일 『한국산학기술학회지』에 「완벽주의와 학업소진간의 관계:학업스트레스와 학업지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교신저자로 게재하였다.



한수미 교수
자기개발 관련 저서 출간

상담심리학과 한수미 교수는 2015년 2월 10일 『자기개발과 진로설계』(학지사)를 공동 출간하였다. 2월에는 『임상심리사 2급 필기서』, 4월에는 『임상심리사 2급 실기서』(정훈사)를 옥정, 이우경 교수와 공동 출간하였다.

봄에는 보자!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께 꼭 추천하고 싶은 대가들의 수필 모음집도 있고, 서울사이버대학교도 찾은 적이 있는 교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뮤지컬의 스테디셀러도 준비해 봤습니다.
이 봄, 책을 보고 문화를 즐겨 보세요. 더욱 더 풍성해지는 여러분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BOOK

수필 모음집,
**조금만 눈을 들면
넓은 세상이 보인다**



출판사 사계절 저자 윤구병 외

청소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진실함이 묻어나는 이 책은 총 4장으로 이루어졌다. 제1장에서는 청소년들에게 들려주는 체험담을 담고 있으며, 제2부에는 우리 땅에서만 느낄 수 있는 사랑과 감회를 고백한다. 제3장에서는 우리 역사를 되돌아보며 고난을 헤쳐가며 나아가는 우리 민족의 강건함을 다루며, 제4장에서는 우리 이웃의 삶을 들려주고 있다. 청소년들이 삶의 자세를 바로 하고, 세상에 대해 날카롭게 통찰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수필모음집이다.

MUSICAL

31년간의 기다림,
뮤지컬 <팬텀>의 역사적인 한국 초연!

1991년 미국에서 초연된 뮤지컬 <팬텀>은 극작사 아서 코핏(Arthur Lee Kopit)과 작곡가 모리 예스톤(Maury Yeston) 콤비에 의해 제작되었다. 가스통 르루(Gaston Leroux)의 원작 소설을 가장 충실하게 살린 뮤지컬 <팬텀>은 베일에 싸인 팬텀의 과거사와 그의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다루어 개연성 있는 스토리 라인을 완성했다. 뮤지컬 <팬텀>의 고전적이면서도 세련된 클래식 음악과 대표적인 파리의 거리를 재현한 무대는 전 세계 관객들을 단숨에 사로잡았으며 2015년 봄, 31년 만에 한국 관객을 찾아온다.

• 장소 : 충무아트홀 대극장 • 기간 : 2015. 4. 28 ~ 2015. 7. 26

BOOK

말랑말랑 뇌과학,
**내 머릿속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출판사 문학동네 저자 KAIST 김대식 교수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인문학 특강도 진행한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김대식 교수가 말하는 머릿속 세상이야기이다. '뇌과학'이란 프레임 통해 세상과 사람을 들여다보는 교양에세이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에 뇌과학 관련 칼럼을 연재하는 저자는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졌던 뇌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고자 했다. 이 책은 뇌의 작용으로 벌어지는 25가지 현상을 소개하며 우리 머릿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과 뇌과학자가 본 사람 & 세상의 이야기가 스토리로 정리되어 있다.

